

교회소식

01. 대림절

- 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받은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② 성탄절 점등식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는 예루살렘성전·베들레헬성전 앞마당과 지구본 광장 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 일시 / 장소: 12.10(오늘) 오후 6시 / 교회 앞마당

02. 2023-24 Love In(러빙) 축제

- Love In(러빙) 축제 준비위원이 아래와 같이 임명되었습니다.
· 담당교역자: 정구일 목사 · 준비위원장: 윤일로 장로 · 상임부장: 이진우 집사

03. 세례·입교 예식

지난 세례·입교 예식에서 105명의 성도들께서 세례를 받았으며, 94명이 입교하였습니다.

04. 임명

2024년 남선교회 회장단, 여선교회 회장단이 임명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msch.or.kr)

05. 문화선교학교

- 문화선교학교 종합전시회와 종합발표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종합전시회: 12.29(금)까지 / 예루살렘성전 지하 1층
· 종합발표회: 12.30(토)까지 / 각 부서별로 진행
· 문의: 교육부 ☎ 02-6930-9406

06. 명성다윗아카데미

- 2024학년도 명성다윗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2024.2.18(주일)까지
· 지원자격: 고교 / 대학 입학 예정자, 대학 2학년(2024년 기준)
· 원서교부: 온라인 다운로드(david.msch.or.kr)
· 원서접수: 엔젤하우스 102호 ☎ 02-6930-9460

07. 알림

- 2023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산승인을 위한 공동의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일시: 12.17(주일) 주일찬양예배 후
· 장소: 예루살렘성전 본당
· 대상: 18세 이상 세례·입교인

금주 신생아

1명

명성교회 출생 신생아(2023년 1월 - 현재)

총 162명

지난주말씀

신앙의 명확한 경계선이 지켜내는 것
시편 1편 1-6절 | 김하나 담임목사

이 시대가 이해하는 자유의 모습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자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단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을 지키며 살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동산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경계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선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모든 자유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경계선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명확한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경계선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들이 바로 우리의 무너진 경계선을 바로 세우고, 잘못 세운 경계선의 위치를 조정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 세워놓은 기도, 구제, 금식의 경계선을 바꾸셨습니다. 특히 팔복은 주님께서 복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속옷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5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10리를 동행해 주고, 7번 용서를 질문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선을 더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은 우리를 복되게 하며 복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고 받은 복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1편은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는 가벼워서 자유롭게지만, 바람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다 땅에 떨어져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명확한 경계선을 갖고 산다는 것은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합니다. 신앙의 경계선을 잘 세우고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경계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이들

원로목사

김삼환

담임목사

김하나

협동목사

김도훈 노영상 배진태
안주훈 최운배

교육목사

권오병 김은혜
박고운 이승갑

목사

김남수 김동민 김동욱 김동진 김득열 김봉기
김석호 김선우 김예셀 김요한 김운호 김은영
김은자 김준환 김춘희 김희영 류현웅 문명석
문승진 박영호 박우진 박현규 방유경 백재용
서찬성 손원재 손지목 송한솔 신동신 신재희
신중현 우중현 유태규 윤석진 이정민 이경환
이대선 이덕기 이서구 이은세 이재민 이정수
이지명 임용섭 임은묵 임지환 장중민 정구일
정홍배 조성민 조재영 천혜림 최대열 최에녹
한바울 한정민 허승환 황대석 황정준

전도사

권예찬 권혁현 김민음 김석현 김승택 박경애
박근우 박보하 박재현 이상인 이 성 이윤관
이준민 이준식 임기도 정구현

교육전도사

강찬용 김용문 김웅기 김윤영 김준영 김하성
문태은 박경민 박초롱 손찬영 송영호 이민기
이성준 자 췌 장건희 차주현 최하정

디아스포라

박경희(태국)

오직주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8절

